

한국불교 근현대사 100년 '한눈에'

선우도량 '신문으로 본...' 1·2집 완간 1896~1969까지 6987건 수록

지난 100년간 불교계의 각종 신문뉴스를 총정리한 한국불교 근현대사 자료집이 나왔다. 이 자료집은 1896년 4월 23일자 독립신문의 '약수절 월갑스님이 씌는 나무를 베어 옮긴 집'을 시작으로 1969년 12월 2일 동아일보의 '특집 봉은사 서기 794년 창건'이란 제하의 기사까지 총 9종 신문 6,987건의 불교관련 기사를 수록했다. 선우도량 한국불교 근현대사 연구회(회장 해담스님)가 95년에 1920년부터 1969년까지 각 신문에 실린 불교 기사를 모은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1집을 출간한데 이어 최근 1896년부터 1945년까지를 정리한 2집을 펴냄으로써 100년의 근현대

불교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이 자료집에는 교단의 문제, 일제 불교정책, 항일 자주화운동, 불교 지식인 논설 등이 시대별로 정리됐다. 이밖에도 불교관계 통계, 사찰의 상황과 스님들의 생활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2집은 일제가 이전 시기와 일제시대에 발행된 신문에서 발췌된 4천여건의 신문 기사를 연대순으로 모았다. 2집은 '일본불교의 국내활동과 조선 불교계(1896-1909)' '총독부 불교정책과 조선불교 왜색화(1910-1918)' '일제 문화정치하의 조선불교계 활동(1919-1930)' '전시총독부령과 불교계 친일(1931-1945)' 등 모두 4부

로 엮여져 있다. 당시 한국불교계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 셈이다. 개항과 더불어 조선에 들어온 일본불교 각 종파의 국내활동을 비롯 승려 도상입성 금지 해제후 상황, 사사관리서(社寺管理署) 설치, 원종 종무원, 임제종 선언서, 불교문화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이 자료집은 역사적 고증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초의 근대적 종무원이 원종종무원에 참여한 인원이 기증확립에서는 불교대표 52명이었으나,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1908년 3월 17일)에 게재된 '불교종무국 취지서' 광고에 따르면 65명이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선불교총종무소인 원종사의 본래 이름은 소흥사로 1899년이 아닌 1902년(황성신문 1월6일자)에 건립된 것으로, 그리고 범어사, 용주사 등이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이번 자료집에 따르면 불교기사가 가장 많이 실렸던 시기는 1915년으로 총 227건이다. 포교 및 신사시원규칙이 발표되면서 부터 불교관련기사가 각 신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일제시대 관보인 대한매일신문은 불교정책을 비롯 교계의 동향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915년 3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달간 대장경의 유래에서부터 '대장경에 대하여'라 논문까지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집중



소개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 연구회는 후속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20명의 불교정책화 관련자 인터뷰자료집을 출간하고, 내년에는 일제 총독부의 종교정책을 살필 수 있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정리해 발간할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4아함중 꼭 읽어야 할 경구 모아

정선 아함경 | 이연숙 옮김



삼보의 가르침을 따르는 출·재가들에 대해 완벽하게 알게 해주는 아함경. 수록된 경전의 성격이나 길이에 따라 장아함, 중아함, 중일아함, 잡아함으로 분류한다. <정선 아함경>은 4아함 2천여가지의 경전을 가운데 꼭 읽어 봐야 할 경구들을 가려 뽑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을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 체계적으로 엮었다. 부처님 탄생, 깨달음을 얻고 다섯 비구를 시작으로 여러 외도들과 수행자들에게 설하시면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 생애를 조목 조목 살펴볼 수 있다. 사성제를 비롯 연기법등 기본적인 가르침도 가득하다. <시공사 펴. 값 2만4천원>

화제의 책

깨달음 이끄는 사고변화수행법

티베트에서 온... | 주민항 옮김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인생의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은 사고변화법,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삶의 지혜가 담긴 명상서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나왔다. 이 책은 삶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난관들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도움이 되는 것으로, 더 나아가 행복으로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며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에서 이용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고변화 수행법'의 하나인 이 책은 불교심리학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맞게 7개의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항 옮김 <경우사 펴. 값 5천원>

보현행원 실천 이렇게

이종린씨 '남은 나를 사랑하시어'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불교를 알게 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솔직히 수행법을 몰랐다. 지식으로 알고 남들 하듯 법회도 나가고 좌선한다며 단전에 힘주고 앉지도 않고, 염불과 진언도 해봤지만 어디까지나 흉내였을 뿐이다." 행원의 실천으로 새로운 신행생활을 하고 그로인해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종린 홍익소아과과장(45). 그가 보현행원을 노래한 <남은 나를 사랑하시어>를 펴냈다. 저자는 보현행원은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행원은 비불자도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출근길, 점심시간, 전화를 받을 때, 잠자리는 물론 하루 24시간, 행원을 실천한다. 물론 초기에는 행원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그러나 경전과 스님들의 법문 그리고 경험들 통해서 행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다. 신간 <남은 나를 사랑하시어>는 저자가 많은 의문과 방황속에서 보현행원을 만나 어떻게 보현행자의 길을 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고백서이자 자전적 구도기이다. 보현행원의 의미와 실천방법 등을 생활모습을 통해 해석하고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읽기 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현행원 안내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바쁘고 수행할 시간이 없는 이, 스승을 못 만나고 방황하는 이, 밀려오는 삶의 무게로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책이다"며 "보현의 열 가지 행원을 일일모습으로 따라 하다보면 어느새 우리 모두 깨달음에 한발짝 성큼 다가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광 펴. 값 7천5백원>

부처님 가르침 + 만화 = 재미있는 감동

"르스님, 저는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남에게 귀한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면 제 지혜가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지 않단다. 만일 어두운 방 안에서 네가 촛불을 들고 있다고 해 보자. 네가 촛불로 옆 사람의 초에 불을 전해 준다면 네 촛불의 밝기가 줄어들겠느냐." "아닙니다. 제 촛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밝기로 타오를 것입니다." 한 제자가 르스님을 찾아가 남에게 불 법을 전하면 자신의 지혜가 줄어들며 전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르스님은 촛불의 비유를 들어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이 더욱 환해지고 아름다워 온 것이다"라며 "불법을 전하는 것도 이와같은 이치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신간 <부처님이 들려주는 108가지 이야기>에 수록된 글들은 짧지만 진한 감동을 준다. 재미도 있다. 어린이 잡지 <동쪽나라>에서 새싹불자들을 위한 글을 써온 양



태석씨가 <아함경> <불교대전>을 비롯 경전속에 담긴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만을 가려 뽑아 엮었다. 여기에 <소년 동아일보>에 '호기심 세계일주'를 연재하고 있는 이범기씨가 각 주제의 요지를 초등 학교 3-6학년 어린이들의 실생활에 맞게 만화로 그려 오늘의 부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생동감 있다. 불교의 핵심사상인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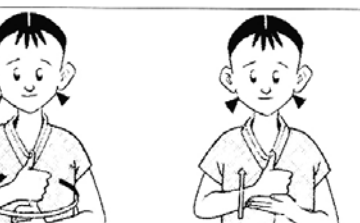
다'는 주제의 연기론(77편)의 경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햄의 비유를 들어 만화로 표현했다. 햄은 돼지고기로 만들고, 돼지는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2편의 '난타의 등공양'을 아빠의 생일날 구두티켓보다 정성이 듬뿍 담긴 시(詩)를 선물한 어린이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라는 가르침을 만화로 표현했다. 이처럼 이 책은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글과 어린이들의 실생활에 맞는 내용의 만화가 동시에 수록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이 책은 어린이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불교용어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교훈적인 이야기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 저자 양씨는 "이 책에 실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 앞으로의 인생을 참되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워 좀더 나은 미래를 가꾸는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인 펴. 값 6천원>

수화로 배우는 부처님 말씀

해성스님 '자비의 수화교실'

청각장애인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화책이 나왔다. 해성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 스님이 펴낸 <자비의 수화교실>은 불교용어를 비롯 인사, 가족, 날씨와 계절, 나라와 지명 등 총 22개로 자세하게 구성됐다. 이 책의 특징은 기존의 수화책을 참고하고 지금까지 연구 발표된 불교수화를 모아 일반수화집에 불교과를 삽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각 쪽마다

가슴에 쉽게 와 닿는 부처님의 말씀을 수록함으로써 일반인도 이 책을 통해 수화를 배우면서 동시에 불교의 좋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청각장애인들의 작은 벗이 되어주고자 수화를 배우게 되었지만 불교수화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불 법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웠다"며 "청각장애



부처님 왼쪽검지를 오른쪽으로 잡고 오른손 엄지를 펴서 화살표 방향으로 돌린다. 인들을 위해 하나, 둘 만들기 시작한 불교 수화연구회가 이제 책으로 출간했다"고 말했다. <불광 펴. 값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문예춘
2	태래	보현	찬선
3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정	동쪽나라
4	무문한 혹은 너는 누구나	한형조	여시아문
5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법	선우도량
6	금강경강의	무비	불광
7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8	거지성자	전재성	선재
9	금강경	윤운순	신우당
10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타	민족사

구입문의: (02)737-0695

일타 르스님의

불자의 기본 예절

신간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축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 I. 불자의 마음가짐과 언행
- II. 합장법과 예배법
- III. 사찰에서의 예절
- IV. 법문 듣는 법
- V. 절집안의 생활예절

4×6 판 / 3,500원

일타르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알려주고자, 일타르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차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생활속의 기도법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 판 / 3,500원

일타 르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전하시는 르스님의 법어집
- 기도(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일타르스님 주변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원호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강설집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풀 해설집
- 범망경보살계 1-5 신국판 / 각권 6,000원
- 르스님의 보살계 법문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강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 일타르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